www.kihasa.re.kr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77호 (2026-1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11. 9. ISSN 2092-7117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

임지영
인구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분석 결과 19~34세 미혼 청년 중 '쉬었음' 미혼 청년은 5.5%였음. 이 중 25세 이상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70.8%는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전 일자리는 취업 집단이나 실업 집단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로 확인됨.
- '쉬었음' 미혼 청년은 현재의 행복 수준과 사회계층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과 사회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사회의 미래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함.
- 결혼 의향(52.1%)과 출산 의향(60.4%)은 모든 경제활동 상태 중 가장 낮음. '쉬었음' 미혼 청년은 사회 미래를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집단인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 결혼 의향이 특히 낮았음.
- 일자리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을 발굴·지원의 우선 대상에 포함하고 첫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여 '쉬었음' 유입을 예방하여야 함.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살 만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고 사회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01. 서론

◆ '쉬었음' 청년(15~29세)의 규모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

- 2026년 8월 기준 39만 5000명(국가데이터처, 2026a)으로 2026년 들어 감소. 그러나 20대 초반의 높은 '쉬었음' 비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높은 '쉬었음' 비율의 범위가 20대 후반까지 넓어지는 등(정지운, 금예진, 2026, p. 1) 규모의 축소와는 별개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DOI: 10.23064/2026.11.477

- 국가데이터처(2026a)는 청년실업과 ‘쉬었음’ 등이 국가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하하는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고용동향과 별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로 보고 있음.
- 개인의 생애과정 측면에서 청년기의 ‘쉬었음’이라는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의 이행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상황과 맞물릴 수 있음.
  - 결혼과 출산은 현재의 여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쉬었음’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현재의 상황과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태가 중첩되어 가족 형성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쉬었음’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 글은 다른 경제활동 상태의 미혼 청년과 비교하여 ‘쉬었음’ 미혼 청년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 미혼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 의향의 차이를 분석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발표하는 ‘쉬었음’ 청년은 15~2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25년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 33.85세, 여성 31.62세이고(국가데이터처, 2026b),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이 19~34세인 점을 참고하여 19~34세를 분석 대상으로 함.

02. ‘쉬었음’ 미혼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상태를 파악하는 문항 내 선택지의 하나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예: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경우)를 말함(통계청, 2022, p. 31).
  - 분석 자료인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1)2)]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유사한 선택지를 통합하여 12개의 선택지를 총 6개로 재구성하였음. 이 글의 ‘쉬었음’ 상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 지난 1주간 했던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경우를 의미함.

◆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분석 결과 경제활동 상태가 ‘쉬었음’인 경우는 19~34세 미혼 청년의 5.54%로 나타남. ‘쉬었음’ 미혼 청년은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기 전반에 걸쳐 분포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표 1).

1) 가족과 출산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여 2단계 층화집락추출방법(1단계 조사구 추출, 2단계 가구 추출)으로 표본을 추출함. 목표 모집단은 2024년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특성 번호 ‘아파트’와 ‘보통’에 해당하는 조사구의 가구를 표본틀로 구성(박종서 외, 2024).

2) 가족출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선택지 구성과 표본 연령 구성이 달라 ‘쉬었음’ 청년 규모와 구성의 차이가 있음.

- '쉬었음' 미혼 청년 중 여성은 52.6%로 전체 미혼 청년 중 여성의 비율(44.8%)보다 높음. 연령은 19~24세 34.0%, 25~29세 44.8%, 30~34세 21.2%로, 19~24세에 집중된 진학·취업준비 집단(80.8%)과 달리 25세 이상이 3분의 2를 차지함.
-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0.0%로 취업자(23.5%)·실업자(23.7%)의 1.7배임. 대학 졸업 이상은 47.8%로 이들보다 낮음. 대학 재학은 12.2%인데, 재학 중 '쉬었음' 응답자를 진학·취업준비로 재분류한 뒤의 수치이므로 휴학과 수료만 포함됨.
-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취업 집단(55.2%)이 제일 낮았고, 그다음은 실업 집단(69.3%)임. 비경제활동 집단은 모두 70%가 넘게 나타남. 비경제활동인구는 저연령대 분포가 높아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표 1〉 19~34세 미혼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진학·취업준비[1]	'쉬었음'	기타[2]
성별						
남자	55.2	55.3	52.5	55.8	47.4	89.4
여자	44.8	44.7	47.5	44.2	52.6	10.6
연령						
19~24세	43.2	25.8	26.3	80.8	34.0	84.9
25~29세	34.9	43.1	48.3	15.3	44.8	10.0
30~34세	21.9	31.2	25.4	3.9	21.2	5.1
교육수준						
고졸 이하	20.3	23.5	23.7	8.3	40.0	61.7
대학 재학(휴학, 수료 포함)	28.9	10.7	2.6	73.7	12.2	10.3
대졸 이상	50.8	65.8	73.7	18.0	47.8	28.0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동거	64.2	55.2	69.3	78.2	72.8	86.7
비동거	35.8	44.8	30.7	21.8	27.2	13.3
일자리 경험						
있음	74.0	100.0	78.4	24.3	70.8	39.3
없음	26.0	0.0	21.6	75.7	29.2	60.7
계	5,822 (100.00)	3,363 (57.75)	352 (6.05)	1,720 (29.54)	323 (5.54)	65 (1.11)

주: 1) 군 입대 대기이면서 교육수준이 대학 재학과 휴학인 경우와 재학 중 '쉬었음'으로 응답한 경우 진학·취업준비로 재분류.
2) 가사, 심신장애, 군 입대 대기, 기타.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표본 가중치 적용.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데이터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쉬었음' 미혼 청년은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경우가 70.8%임.
  -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 평균 기간은 12.5개월임. 중앙값은 7개월로 나타나 일부 장기 이탈자가 평균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표 2).
  - 재직한 일자리의 평균 개수는 1.69개였고, 최대 4개의 일자리 경험이 있었음.

〈표 2〉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 기간과 이전 일자리 개수

(단위: 명, 개월)

구분	사례 수	노동시장 이탈 기간(월)					이전 일자리 개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성별									
남자	99	15.3	7	22.2	1	101	1.59	1	3
여자	129	10.4	7	14.6	1	108	1.77	1	4
연령									
19~24세	46	11.7	7	10.1	1	41	1.26	1	3
25~29세	119	8.5	5	12.2	1	67	1.70	1	4
30~34세	64	20.7	7	27.9	2	108	2.00	1	4
교육수준									
고졸 이하	91	14.3	7	21.3	1	101	1.83	1	4
대학 재학 (휴학, 수료 포함)	12	18.1	9	20.0	7	67	1.00	1	1
대졸 이상	126	10.7	6	15.8	1	108	1.66	1	4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동거	156	13.1	7	15.8	2	88	1.57	1	4
비동거	72	11.2	4	23.2	1	108	1.96	1	4
계	229	12.5	7	18.4	1	108	1.69	1	4

주: 1) 일자리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을 제외하고 분석.
2) 교육수준 중 대학 재학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표본 가중치 적용.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데이터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미혼 청년의 일자리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규직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쉬었음’ 미혼 청년은 마지막 일자리[3]의 정규직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성별로 파악해 보면 여자는 실업 집단과 ‘쉬었음’ 집단의 이전 직장 정규직 비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5.1%포인트) 남자는 ‘쉬었음’ 집단의 22.4%만이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이전 일자리의 안정성이 좋지 않았음.

- 연령별로는 취업 상태인 미혼 청년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쉬었음’ 미혼 청년은 상승폭이 적고 심지어 25~29세(38.9%)에 비해 30~34세의 이전 직장 정규직 비율(36.6%)이 낮음.
  - 19~24세에서는 세 집단 모두 정규직 비율이 낮아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쉬었음’ 미혼 청년이 다른 집단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성임. 특히 30~34세 ‘쉬었음’ 미혼 청년은 취업 청년 대다수가 정규직에 진입한 시점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두고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집단으로, 이들의 결혼·출산 의향을 해석할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취업 집단은 현재 일자리 기준.

[그림 1] 19~34세 미혼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단위: %)



주: 1) 취업 집단은 현재 일자리를, 실업과 쉬었음 집단은 직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2)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정규직 비율임.
3) 표본 가중치 적용.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데이터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03.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

가. 개인의 미래 전망과 사회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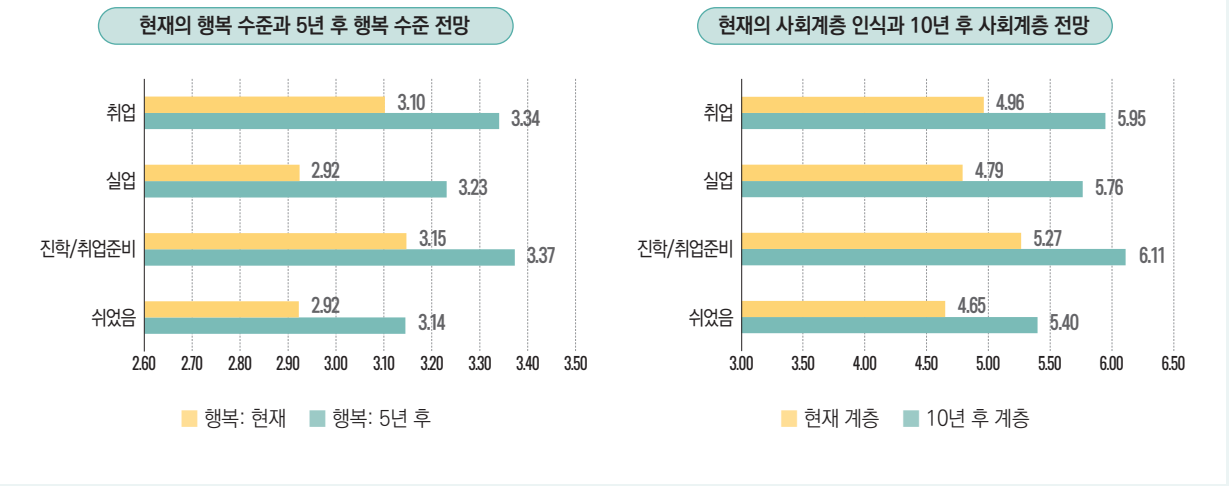
◆ '쉬었음' 미혼 청년은 현재의 행복 수준과 사회계층 인식이 모두 낮고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상승폭이 작게 나타남.

- 이들은 현재의 행복이 2.92점으로 실업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며, 5년 후 행복 전망은 가장 낮은 수준임. 현재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10년 후의 사회계층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전망하고 있음.

- 실업 집단과 '쉬었음' 집단은 현재의 행복과 사회계층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임. 실업 집단은 '쉬었음' 집단에 비해 미래의 행복 수준과 사회계층을 더 높게 전망함.
  - 이는 구직 중인 청년은 지금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보는 반면 '쉬었음' 청년은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쉬었음' 미혼 청년의 10년 후 사회계층 전망은 5.40점으로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상승폭은 낮게 나타남.

[그림 2] 19~34세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

(단위: 점)



주: 1) 행복은 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사회계층은 1(가장 낮음)~10(가장 높음)으로 측정.
2) 표본 가중치 적용.
3) 기타 집단은 1.1%로 집단 규모가 작아 제외하였음.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데이터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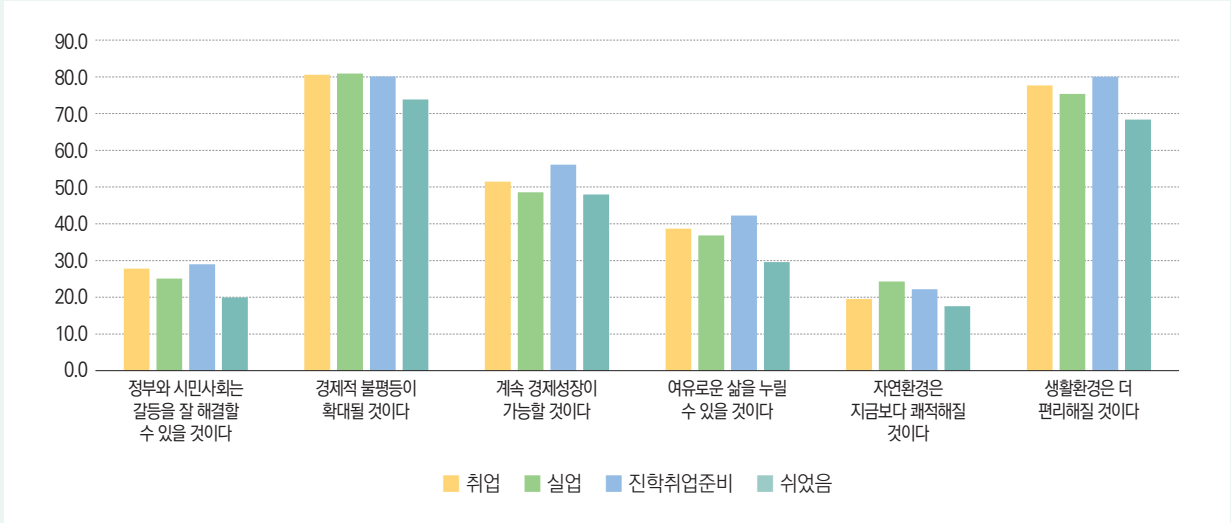
◆ 사회 미래 전망은 총 6개 문장에 동의하는 비율로 파악함. ‘쉬었음’ 미혼 청년은 취업 집단이나 실업 집단에 비해 대체적으로 사회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함.

- ‘쉬었음’ 청년은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29.6%), ‘생활환경은 더 편리해질 것’(68.4%),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19.9%)이라는 세 항목에서 취업 청년(각 38.7%, 77.7%, 27.8%)에 비해 8~9%포인트 더 낮게 응답해 차이를 보임.
  - 다른 두 문항(계속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자연환경은 더 쾌적해질 것이다)에서도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임.
  - 다만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문항에서도 다른 집단보다 낮은 동의 비율을 보여 취업 미혼 청년이나 실업 미혼 청년에 비해 경제적 불평등은 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남.[4)]
- 반면 진학·취업준비 미혼 청년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취업 집단과 같거나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같은 비경제활동 상태인 ‘쉬었음’ 미혼 청년과 다른 양상을 보임.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준비 여부 역시 사회의 미래를 보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 개인의 미래(행복·계층)에서는 실업 청년도 ‘쉬었음’ 청년과 현재 상태를 비슷하게 인식하였지만,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쉬었음’ 청년의 비관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음.

4) 분석 결과가 부정적 선택지를 고르는 응답 경향에 따른 결과인지를 점검한 결과 비일관 응답자의 비율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 이들을 제외해도 집단 간 차이가 유지되어 응답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림 3] 9~34세 미혼 청년의 사회 미래 전망

(단위: %(동의 비율))



주: 1) 사회 미래 전망은 1(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4(매우 그럴 것이다)로 측정. 3+4로 동의 비율 산출.
2) 표본 가중치 적용.
3) 기타 집단은 1.1%로 집단 규모가 작아 제외하였음.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데이터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나. '쉬었음' 미혼 청년의 가족 형성

◆ **결혼 의향[5]과 출산 의향으로 미혼 청년의 가족 형성 의향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쉬었음' 미혼 청년의 가족 형성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 결혼 의향은 취업일 경우 가장 높고(72.1%) '쉬었음' 상태일 때 가장 낮았음(52.1%). 출산 의향도 마찬가지로 '쉬었음' 미혼 청년이 가장 낮게 나타남(60.4%).
  - '쉬었음' 미혼 청년의 15.1%가 결혼 의향이 없고 32.8%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출산은 결혼보다 의향이 더 높긴 하지만 취업 집단에 비해 12.4%포인트 차이를 보임. '쉬었음' 미혼 청년은 가족 형성을 다른 집단에 비해 유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 성별로는 '쉬었음' 남성의 결혼 의향(53.9%)이 취업(76.3%)·실업(74.7%)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반면 여성은 '쉬었음'(50.5%)과 실업(53.9%)이 비슷하여 '쉬었음'에 따른 차이는 남성에게서 두드러짐.
  - 성별 출산 의향 역시 결혼 의향과 유사하게 나타남.

5) 결혼 의향의 선택지는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②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③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⑤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모르겠다)'의 다섯 가지가 있음. 이를 '있음(①)', '없음(②+③)', '모르겠다(④+⑤)'로 재구성하였음.

〈표 3〉 19~34세 미혼 청년의 성별 결혼과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진학·취업준비[1]	‘쉬었음’	기타[2]
〈결혼 의향〉						
전체						
있다	68.3	72.1	64.8	64.5	52.1	66.9
없다	8.4	8.8	12.6	5.5	15.1	12.0
모르겠다	23.3	19.1	22.5	29.9	32.8	21.1
남성						
있다	72.2	76.3	74.7	66.7	53.9	70.0
없다	7.3	8.2	7.1	4.0	16.4	10.2
모르겠다	20.5	15.5	18.2	29.3	29.7	19.8
여성						
있다	63.5	66.9	53.9	61.8	50.5	40.4
없다	9.9	9.5	18.8	7.5	14.0	27.5
모르겠다	26.7	23.6	27.3	30.7	35.5	32.1
계	5,822 (100.0)	3,363 (57.8)	352 (6.1)	1,720 (29.5)	323 (5.5)	65 (1.1)
〈출산 의향〉						
전체						
있다	72.0	72.8	70.4	73.0	60.4	73.0
없다	28.0	27.2	29.6	27.0	39.6	27.0
남성						
있다	77.2	77.5	82.4	78.1	62.8	74.3
없다	22.8	22.5	17.6	21.9	37.2	25.7
여성						
있다	65.6	67.0	57.2	66.4	58.2	61.4
없다	34.4	33.0	42.8	33.6	41.8	38.6
계	5,822 (100.0)	3,363 (57.8)	352 (6.1)	1,720 (29.5)	323 (5.5)	65 (1.1)

주: 1) 군 입대 대기이면서 교육 수준이 대학 재학과 휴학인 경우와 재학 중 ‘쉬었음’으로 응답한 경우 진학·취업준비로 재분류.
2) 가사, 심신장애, 군 입대 대기, 기타.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표본 가중치 적용.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데이터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연령대별로 보면 ‘쉬었음’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은 19~24세 47.7%, 25~29세 56.4%, 30~34세 49.9%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음. 출산 의향의 경우 19~24세에서는 ‘쉬었음’(70.2%)과 다른 집단(72~74%)의 차이가 없으나, 25~29세(54.4% vs 취업 73.4%)와 30~34세(57.1% vs 취업 71.0%)에서 격차가 벌어짐.
  - 20대 초반에는 결혼과 출산이 모든 청년에게 먼 일이어서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는 일이지만, 결혼과 출산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연령이 되면 ‘쉬었음’ 청년의 가족 형성 의향이 뚜렷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표 4〉 19~34세 미혼 청년의 연령별 일자리 경험별 결혼과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진학·취업준비[1]	'쉬었음'	기타[2]
〈결혼 의향〉						
연령						
19~24세						
결혼 의향 있음	66.6	72.2	60.9	64.8	47.7	72.2
결혼 의향 없음	5.3	4.8	18.5	4.3	8.6	8.9
모르겠다	28.1	23.1	20.6	30.9	43.6	18.9
25~29세						
결혼 의향 있음	69.4	72.2	65.9	64.2	56.4	37.6
결혼 의향 없음	9.1	8.8	6.4	8.2	16.8	11.7
모르겠다	21.5	19	27.7	27.6	26.8	50.7
30~34세						
결혼 의향 있음	69.7	72.0	66.8	60.0	49.9	35.4
결혼 의향 없음	13.6	11.9	18.5	21.6	22.2	64.6
모르겠다	16.7	16.1	14.7	18.4	28	0
일자리 경험						
일자리 경험 있음						
결혼 의향 있음	70.3	72.1	66.7	65.0	57.4	75.1
결혼 의향 없음	9.4	8.8	12	9.9	15.4	6.9
모르겠다	20.3	19.1	21.3	25.2	27.1	18
일자리 경험 없음						
결혼 의향 있음	62.4	-	57.9	64.4	39.1	61.5
결혼 의향 없음	5.6	-	15.1	4.2	14.4	15.4
모르겠다	31.9	-	27	31.4	46.5	23.2
계	5,822 (100.0)	3,363 (57.8)	352 (6.1)	1,720 (29.5)	323 (5.5)	65 (1.1)
〈출산 의향〉						
연령						
19~24세						
출산 의향 있음	74.0	73.9	72.3	74.4	70.2	74.8
출산 의향 없음	26.0	26.1	27.7	25.6	29.8	25.2
25~29세						
출산 의향 있음	70.8	73.4	69.4	66.5	54.4	76.6
출산 의향 없음	29.2	26.6	30.6	33.5	45.6	23.4
30~34세						
출산 의향 있음	69.9	71.0	70.3	67.3	57.1	35.4
출산 의향 없음	30.1	29.0	29.7	32.7	42.9	64.6
일자리 경험						
일자리 경험 있음						
출산 의향 있음	71.9	72.8	73.4	68.9	60.4	90.1
출산 의향 없음	28.1	27.2	26.6	31.1	39.6	9.9
일자리 경험 없음						
출산 의향 있음	72.3	-	59.6	74.2	60.1	61.8
출산 의향 없음	27.7	-	40.4	25.8	39.9	38.2
계	5,822 (100.0)	3,363 (57.8)	352 (6.1)	1,720 (29.5)	323 (5.5)	6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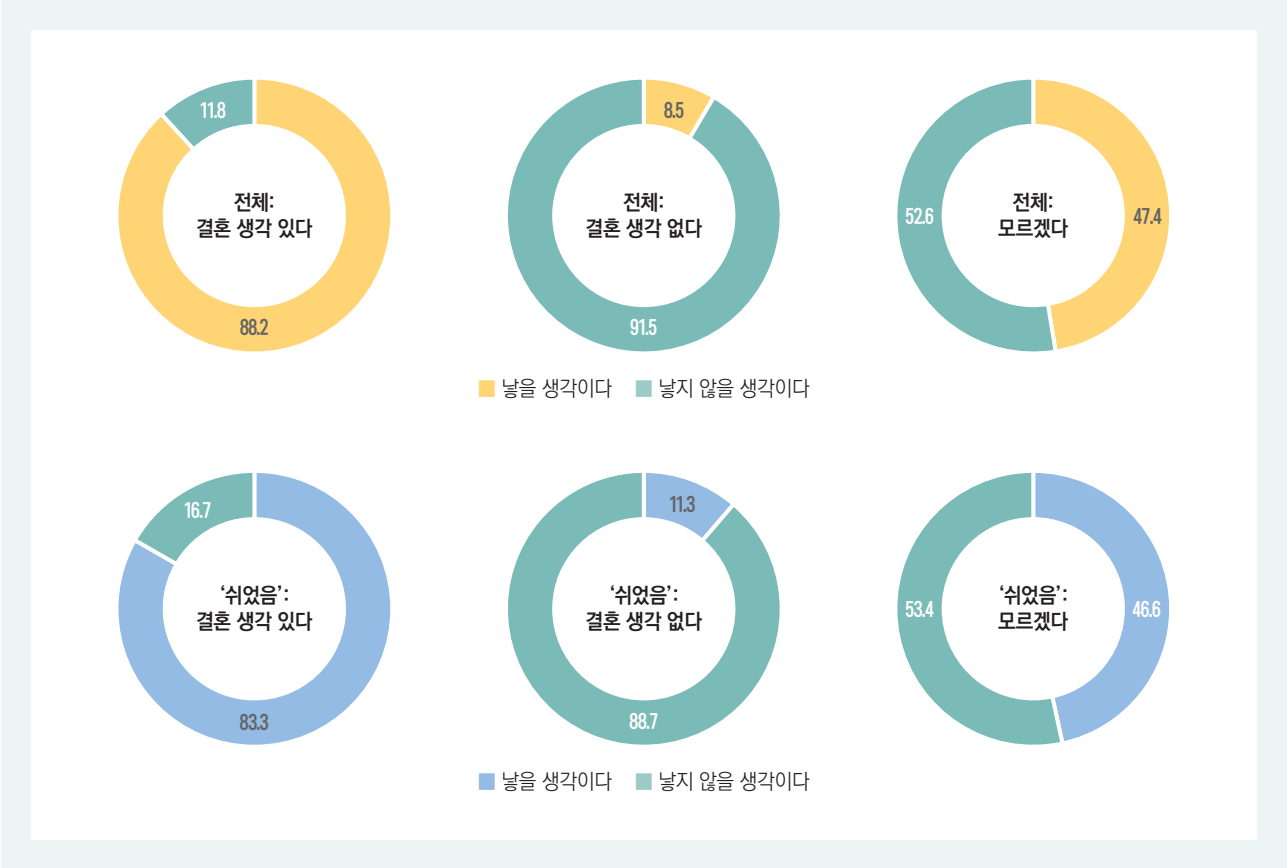
주: 1) 군 입대 대기이면서 교육 수준이 대학 재학과 휴학인 경우와 재학 중 '쉬었음'으로 응답한 경우 진학·취업준비로 재분류.
2) 가사, 심신장애, 군 입대 대기, 기타.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표본 가중치 적용.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데이터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일자리 경험에 따른 결혼 의향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 중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 결혼 의향은 39.1%로,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57.4%)보다 낮게 나타남. 같은 비취업 상태인 실업과 진학·취업준비 집단에서는 일자리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이 가족 형성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
  - 다만 ‘쉬었음’ 미혼 청년의 일자리 경험에 따른 출산 의향 차이는 없음(60.1% vs 60.4%).[6)]

[그림 4] 19~34세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별 출산 의향 분포

(단위: %)



주: 표본 가중치 적용.

출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데이터와 코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그림 4]를 통해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 전체 미혼 청년과 ‘쉬었음’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에 따른 출산 의향은 집단별로 크게 차이가 없음. 결혼 생각이 있는 경우 출산 의향이 80% 이상 높게 나타나고, 결혼 생각이 없는 경우 출산 의향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됨. 결혼을 유보하는 경우(생각해 본 적 없다+모르겠다)에는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50%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남.**

- 이 결과를 통해 〈표 4〉에서 19~24세와 일자리 경험이 없는 ‘쉬었음’ 미혼 청년의 출산 의향이 결혼 의향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이유를 가늠할 수 있음. 두 집단은 결혼을 유보한 응답이 각각

6) 일자리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은 결혼을 유보한 응답이 절반(46.5%)에 가까운데, 결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경우 출산에 대해서도 의향을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출산 의향 문항의 경우 선택지가 양자택일이어서 응답이 갈리게 되고(그림 4)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43.6%, 46.5%로 '쉬었음' 전체 집단(32.8%)보다 많은데, 결혼 의향 문항과 달리 출산 의향 문항에는 판단 유보에 관한 선택지가 없어 이들의 절반가량이 '낳을 생각이다'를 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쉬었음' 미혼 청년, 특히 20대 초반과 일자리 경험이 없는 청년의 출산 의향은 결혼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응답을 포함하고 있음. 이들의 가족 형성 의향은 '포기'보다 '유보'의 성격이 큰 것으로 해석됨.

04. 시사점

◆ **분석 결과 '쉬었음' 미혼 청년이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집단이면서 가족 형성 의향도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남. 이는 노동시장 이탈과 부정적 전망이 겹치는 상태에서는 이들의 가족 형성 계획이 유보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결혼·출산 의향은 현재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가족 및 주거 여건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형성되므로 집단 간 차이를 '쉬었음' 상태만의 결과로 볼 수는 없음.
- 그럼에도 '쉬었음' 미혼 청년의 낮은 가족 형성 의향은 포기보다는 유보의 성격이 강함. 다른 경제활동 상태 집단과 '쉬었음'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차이가 일자리 경험이 없는 청년과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난 점을 통해 정책이 개입해야 할 지점과 먼저 지원해야 할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음.

◆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대책을 발표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재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뉴딜 추진 방안,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대표적임.**

- 청년 고용 대책인 청년뉴딜 추진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6a)과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6b)은 '쉬었음' 청년 감축을 주요 목표로 두고 대기업 연계 훈련과 일경험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의 대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과 중소기업 재직 유지를 지원함.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고용노동부, 2025)는 학교·군·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연계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여 일경험과 심리상담에 연결하는 '쉬었음' 청년 대상 직접 지원 정책임. 이 정책들은 일경험 기회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청년층에게 기대되는 생애과정의 주된 과업은 노동시장 참여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그 후에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우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일자리 경험이 없는 '쉬었음'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남. 일하다 퇴사하여 쉬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일자리 경험이 없는 '쉬었음' 미혼 청년도 빠르게 발굴하여야 할 것임. 이들에게 직업훈련과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여 첫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마련해 주어야 함.
  - 현재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서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임(고용24, 2026).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빠르게 발굴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심사 중) (대한민국 국회, 2026)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빠르게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 일자리의 안정성은 ‘쉬었음’ 미혼 청년에게 취약한 지점으로 드러남. 이들은 평균 1.69개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 ‘쉬었음’ 상태로 진입하였음. 이전 일자리의 정규직 비율이 낮았으므로 초기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행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할 때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규직인 경우에만 해당함.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026)을 확대하여야 함.
  - 2024년 종료된 뒤 2026년 다시 시작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예산 총 69억 원에 지원 대상이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됨. ‘쉬었음’ 청년의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마지막 일자리를 경험하는 만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 및 확대하여 이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 결혼과 출산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나의 여건은 어떠할지 등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쉬었음’ 미혼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하여 누적될 경우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쉬었음’ 미혼 청년은 사회의 미래를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집단이면서 결혼·출산 의향도 가장 낮은 집단임. 이는 가족 형성이 자신과 자녀가 살아갈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며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을 시사함.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고 여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생 정책의 전제 조건임을 뜻함.

- ‘쉬었음’ 청년의 경우 사회에 대한 비관이 가장 두드러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 신뢰를 높이고 살 만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함께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쉬었음’ 청년의 결혼 의향에서 생각해 본 적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다는 점은 이들이 가족 형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미루고 있음을 보여 줌. 노동시장 복귀 과정에서 주거·자산 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청년 임대·전세주택 등) 등을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도 연계하면 이들의 가족 형성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결혼·자산 형성 지원 정책의 대부분이 재직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음. ‘쉬었음’ 청년은 그 기간 동안 정책 대상이 될 수 없고 일을 하게 되더라도 가입 및 납입 기간이 짧아 불리함. 이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게 될 경우 정책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함.

참고문헌

고용24.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https://www.work24.go.kr/wk/g/b/1100/busiIntro.do

고용노동부. (2025. 9. 10.). **모든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정부가 함께 합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98

고용노동부. (2026. 1. 1.). **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9

관계부처 합동. (2026a. 4. 29.). **청년뉴딜 추진방안 –"새로운 출발선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31

관계부처 합동. (2026b. 8. 28.).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42

국가데이터처. (2026a). **청년 고용동향**. 지표누리(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국가데이터처. (2026b). **평균초혼연령**. 지표누리(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2&idxCd=H0006&upCd=202

대한민국 국회. (2026).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2221549호).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N6M0 K9L2S1T1S6S4Q6R3P5L9M3K1

박종서, 이지혜, 정희선, 이소영, 장인수, 최선영, 이혜정.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지운, 금예진. (2026. 10. 15.).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Ⅱ: 확산의 지속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별 불이익. *KRIVET ISSUE BRIEF*, *329*.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와 코드북].

집필 임지영 (인구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 044-287-8295